

나주시, '94년 역사' 남평주조장 근대산업유산으로 재탄생 추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세미나 개최... 보존 및 활용 방안 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구상, 국가유산 지정 신청도 추진키로

전라남도 나주시가 94년 역사를 간직한 남평주조장(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7호)의 체계적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서며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본격화한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 남평주조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남평주조장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질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1932년 5월 15일 설립된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주 지역의 술 빛는 문화를 대변해 온 상징적 공간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조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역사 기록물이 남아 있으며 건물 원형 또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현 배재대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는 '지역이 살아있는 근대산업유산으로서 남평주조장'을 주제로 건축적 가치와 근대 산업사적 의미를 설명했으며 이현중 목포대 교수(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는 '남평주조장의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통해 원형 보존과 지역 발전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종합정비계획을 마무리하고 단계적 복원 사업에 착수할 계



획이다. 단순한 건물 복원을 넘어 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전시하고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역 경제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유산 지정 신청 등 남평주조장의 가치를 한층 격상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

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남평주조장은 나주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고 남평의 역사, 자연 자원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에 봄과 꽃, 사람이 온다

목련, 튤립, 아네모네 등 봄꽃 순차 개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이 깨어났다. 새학기, 새출발의 설렘이 가득한 계절에 순천만국가정원이 1년 중 가장 다채로운 생명의 색으로 나들이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정원의 봄을 상징하는 튤립은 올해 전국 첫 개화 기록을 세우며 동원 맞이원과 스페이스허브, 네덜란드 정원 등 전역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종, 100만 본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튤립은 신축 재배장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백목련과 자목련도 노을정원과 나무도감원에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고, 뒤를 이어 수선화, 아네모네, 벚꽃, 유채 등 250만 송이 봄꽃이 3월 내내 릴레이처럼 피어나며 정원을 물들일 예정이다.

정원의 봄을 즐기는 방법은 보는 것, 찍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원을 무대로 정적인 방식의 명 패러기가 아닌 손을 움직여 뇌를 숨 쉬게 하는 '생

산적 휴식, 가든 명'행사를 개최한다. ▲순팔의 물길 '뜨개질 명'▲문장의 채집 '글명' 등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봄의 정원은 미식으로 완성된다. 벚꽃이 흩날리고 튤립이 만개하는 3월의 정원에서 특별한 미식 행사가 펼쳐진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기는 피크닉과 예쁜 도시락 콘테스트가 파사로운 햇살 아래 펼쳐진다. 또한 BBQ빌리지와 프랑스정원, 장독대정원 등에서 즐기는 미식 경험은 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정원에서 먹고, 쉬고, 웃으며 눈과 입이 즐거운 잔차 봄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정원의 봄은 공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정원과 동천을 잇는 정원드림호가 출항하고 정원 순천만을 잇는 스키야쿠브, 정원을 산뜻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도 매년 큰 인기다. 특히 정원드림호에서 바라보는 동천변 벚꽃길은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순천/정성인 기자

강진군이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강진군은 전라남도와 협력해 지역 상권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 월 2만 원이던 가입장려금을 올해부터 월 3만 원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계획이다.

강진군,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연 최대 36만원 지원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3만원으로 인상에 경영부담완화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다.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3만 원씩, 1년간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이 적립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공제 제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등 경영난 발생 시 압류가 불가한 자산으로 보호받아 안전하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납입금 전액 적립과 함께 3.3%의 복리이자 적용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군비로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구 방문 가입 시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지참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군은 지난 26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대덕읍 내지항 일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8기 국정 핵심 기조인 '사고 예방 중심 현장행정'을 구체화한 조치로, 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8기 국정 핵심 기조인 '사고 예방 중심 현장행정'을 구체화한 조치로, 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했다.

장흥군,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선제 대응' 총력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

동 어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와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겨울철 저온에 따른 기관 동결과 배터리 방전, 기상 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와 강풍 등 계절적 위험요인을 집중 안내

하며 출항 전 자율 안전점검과 기상정보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계도도 병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예방 행정을 통해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곡성군이 청년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중 예비창업자이며, 기존 창업자는 신청할

곡성군,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예비창업자 3명, 최대 2천만 원 지원

수 없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브랜딩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

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전화(☎061-360-29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예비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성군 "주거 취약 주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2억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

장성군이 기초생활수급 주민 대상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취약 주민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 내 2억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전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전달되며, 지원금은 자격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